

고규홍의 '나무 생각'



꽃향기의 이유

꽃향기 모두 상큼한 건 아니다. 밤꽃 향기만 해도 그렇다. 필경 꽃에서 번져 나오는 향기이건만 아랫하다. 향기라기보다는 그냥 냄새라고 부르는 게 맞을 듯하다. 동물성의 비릿함이 진동한다. 영락없는 정액 냄새다. 밤꽃 필 때 아나네들의 외출을 삼가도록 했다거나 '밤꽃 피면 재 넘어 과부대 뭉뚱친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

밤나무에서는 암꽃과 수꽃이 한 그루에서 따로 피어나는데, 비릿한 냄새를 피우는 건 술하게 많은 꽃가루를 달고 하얗게 피어나는 수꽃이다. 암꽃은 실처럼 가느다랗게 이어지는 수꽃 안쪽에 서너 개씩 숨어서 피어난다. 수꽃의 꽃가루가 바람결을 따라 암꽃으로 날아와 앉으면 혼사가 이뤄진 것이다. 드디어 밤송이를 맺을 수 있다.

바람에 중매를 맡기는 꽃들은 꽃가루받이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남비로 여겨질 만큼의 많은 꽃가루를 생산한다. 봄철에 소나무 동산을 뒤덮는 송화나무가 대표적이다. 밤나무의 수꽃이 암꽃에 비해 훨씬 많은 수꽃을 피우는 것도 같은

이치다. 바람에 꽃가루받이를 맡기기 위해 그토록 많은 수꽃을 피웠지만 밤나무는 바람에만 기대지 않는다. 혼사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나 더했다. 독특하고 자극적인 향기다. 여러 종류의 곤충을 끌어들이 만한 비릿한 냄새다. 꽃송이 안에 든 꿀까지 곤충을 꼬드기는 데에 한몫 거든다. 자극적인 냄새를 찾아 벌과 나비는 물론이고 풍뎉이·개미·파리까지 몰려든다. 밤에는 나방까지 꽃가루와 꿀을 찾아 날아든다. 밤나무에게는 모두 고마운 곤충이다.

식물은 향기를 짓기 위해 무려 700종류 이상의 화합물을 사용한다. 식물의 속내를 짚어 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원료가 그만큼 다양하고 식물마다 제각각 본성이 다르다 보니, 향기 또한 분류가 불가능할 만큼 다양할 수밖에 없다. 라일락이나 장미꽃처럼 상큼하고 달콤한 향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식물의 꽃에서는 동물의 배설물 냄새라든가 생선 썩는 고약한 악취가 풍겨 나오기도 한다.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예로, 초겨울에 피어나는 꽃이 있다. 그즈음에 피어나는

꽃은 향기가 저거나 상쾌하지 않은 향기를 가졌다. 우리네 남녘에서 잘 자라는 팔손이의 꽃이 그렇다. 달콤한 향기를 좋아하는 벌과 나비가 없는 초겨울에 굳이 벌·나비를 유혹할 향기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팔손이는 초겨울까지 활동이 왕성한 파리를 불러들이는 게 효과적이라는 걸 잘 안다. 굳이 향기를 내야 한다면 파리가 좋아하는 향기를 내는 게 유리하다.

꽃향기 가운데 가장 극적인 건 세상에 서 가장 큰 꽃송이를 피우는 라플레시아 꽃이다. 인도네시아의 숲속에서 덩굴식물에 기생하는 라플레시아 꽃은 한 송이가 지름이 무려 1m를 넘는다. 일주일 동안 피어 있는 라플레시아 꽃에서는 고기나 생선 썩는 고약한 냄새가 난다. 라플레시아가 이처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건 그 냄새를 좋아하는 곤충, 즉 파리를 끌어들이려는 절실한 생존 전략이다. 거대한 꽃을 피우는 또 하나의 식물인 타이탄아름 역시 건디기 힘들 만큼 고약한 냄새를 피운다. 지름 1.5m, 높이 3m 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타이탄아름 꽃을 관찰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방독면을 착용해야 한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하여 아예 타이탄아름을 '사체(死體) 꽃'이라고 부를 정도다.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는 향기에는 좋고 싫음이 분명하게 나뉜다. 그러나 호오(好惡)의 기준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 향기와 악취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은 쇠똥으로 머리를 손질한다. 모두가 꺼리는 동물의 배설물 냄새를 마사이족 사람들은 중요한 미적 기준으로 삼는다.

비릿한 냄새든, 시체 썩는 냄새든, 장미꽃 향기든 모두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건 자연 속의 모든 존재를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즈음의 밤꽃향기는 물론이고, 가을이 되면 거리를 뒤덮을 은행 열매의 고약한 냄새까지, 좋은 냄새든 그늘의 존재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해볼 일이다. 그게 이 땅, 이 자연 속에서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슬기다.

〈나무 칼럼니스트〉

社說

원자력안전위, 사고 나면 그때 대처한다니

한빛원전 중대 사고에 대비한 모의실험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자는 광주시의 요청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반수가 많아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원전 사고 예방을 위한 모의실험과 방재 대책을 내놓아야 할 주무 부처가 도리어 ‘문제가 없다’며 퇴짜를 놓은 것이다. 주객이 바뀌어도 한참 뒤 바뀐 꼴이다.

광주시가 “한빛원전 재난 사고에 대비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 달라”는 건의를 담은 공문을 원안위에 보낸 것은 지난 1일이었다. 원전 사고의 치명적인 위험을 고려해 영공 한빛원전 사고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원전 사고 시 행동 매뉴얼 정비 등 원전 방재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시는 공문에서 광주가 한빛원전과 근거리(50km)에 위치한 인구 150만 명의 대도시라는 점, 원전 사고는 재난의 규

모 면에서 국가 차원의 상황 대처와 준비가 필요한 국가 재난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협조를 구했다. 그런데 정작 돌아온 답변은 귀를 의심케 했다. 원안위는 광주시 요청에 “원전 중대 사고는 방사성 물질 방출량, 기상 등 변수가 많아 모의실험은 불필요하다. 비상상황이 일어나면 그때 대처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내온 것이다. 아니 어떻게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던 말인가.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능 공포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우리나라 지진 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의 강진이 경주에서 발생하면서 원전 문제는 국가안보 사안이 됐다. 그런 점에서 시의 요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로서 해야 할 당연한 조치다. 원안위는 지금까지도 원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체계적인 방재 대책을 수립하고 담당 부처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문제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안철수 직접 해명해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파문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검찰은 어제 제보 조작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국민의당도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어제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이 사안에 연루된 이 씨는 물론 이 전 최고위원, 이용주 전 공명선거추진단장 등 관련자들에게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당 안팎에서는 당내에서 이 씨에게 조작을 지시한 일이 있었는지, 특히 안 전 대표가 이번 일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이 이번 조사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당원인 이 씨가 독자적으로 증거조작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19대 대선이 안 전 대표를 중심으로 치러진 상황에서 이 씨는 안 전 대표의

제자였고 이 전 최고위원은 안 전 대표가 영입한 인물이다.

그런데도 당의 최대 주주인 안 전 대표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안철수 후보는 연루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는 국민의당 지도부도 어떤 형태로든 안 전 대표에게 남은 선택은 “정계 은퇴”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물론 안 전 대표의 고민도 깊을 것이다. ‘리베이트 사태’ 당시 당직을 내려놓고 대선 때는 의원직을 사퇴한 안 전 대표에게 남은 선택은 “정계 은퇴”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작 사건에 직접 관련성이 없다면 이는 과도한 요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안 전 대표는 사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상응하는 책임을 감수하는 것이 자신이 추구해 온 ‘새 정치’의 모습일 것이다.

삶과 교육



이정선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자연의 운행이치는 어디든 유사하다. 사람 사는 세상도 고이면 썩게 마련이고, 악취가 나는 것은 오랫동안 통하지 못하고 고여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이끼가 끼는 것처럼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성장과 발전을 멈추면 쇠퇴하기 시작한다. 그런 점에서 엘빈 토플러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21세기의 문명자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하고, 교정하고 재학습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즉 배우려하지 않고 낡은 지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사로잡혀서 새롭게 배우려 하지 않거나 변화를 거부하거나 획일적인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것 역시 구르지 못하는 돌과 같다.

고이면 썩게 마련인 것은 정치도 마찬가지이다. 권력은 부패한다. 우리의 정치가 그나마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최근에 와서 선거를 통해 정권이 자주 바뀌었기 때문이다. 역사를 통해 보듯, 한 사람이나 한 정당이 장기집권 하는 것은 어느 사회건 병폐를 한다. 마치 고인 물처럼 갈수록 자정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체계적인 지도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도 전폭적인 대중적 지지에도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단

일모임 임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왜 아니 명분과 권력에의 유혹이 없었겠는가 마는 과감하게 후진을 위하여 살신성인, 자리를 물려주고 내려온 것이 그의 위대함 아니었겠는가?

어느 사회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욕심을 부리면 후진 양성에 게을리하게 된다. 그런 사회는 희망이 없다. 피가 뚝뚝 타고 흐르듯 정치에서도 세대교체가 자주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국회의원의 주장처럼 선출직의 연령제한을 굳이 두어야 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에 의한 불란서의 성공적인 정치적 세대교체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례가 아니겠는가? 지난 대선에서 왜 우리 호남은 유력 대선주자조차도 내지 못했는가? 결국 물이 흐르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정치적 세대교체에 실패하고 후진 양성을 못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물은 흘러야 한다.

우리가 잘 알 듯 어느 조직이건 새로운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돌아가면서 자리 나누기에 급급한 집단은 발전이 없다. 이 질적인 새로운 피가 수혈되지 못하고 근진 교배식의 자기 사람으로 자리를 충당하는 집단은 뒤처지게 마련이다. 마치 황소개구리가 안일하게 근진 교배를 하

다가 멸종의 위기에 처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교육계도 마찬가지이다. 한 사람에 의한 장기집권은 어떠한 명분이건 정당화될 수 없다. 하이브리드 시대, 특정 이념에 의한 획일성보다는 다양성과 융합의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변화의 시대이다. 조직 역시 생각이 같은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져야 한다.

즉, 내부에서 ‘동생’끼리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이 아니라 외부의 새로운 인재가 다양하게 수혈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교육도 미래가 없다. 고인 물이 썩게 마련인 것처럼, 외부의 비판적 조언자들조차도 멀리하는 그런 조직에서 어찌 발전이 가능하겠는가? 사람이 바뀌어야 관행이 바뀌고 잘못된 관행이 바뀌어야 교육이 바뀐다. 그 변화의 시작은 사람이다.

일단은 기다리는 비가 소나기 퍼붓듯 충분히 내리서 개울마다 물이 칼칼 넘쳐났으면 좋겠다. 흐르는 물속에서 구르는 돌멩이들이 들려주는 노랫소리가 다시금 힘차게 들렸으면 좋겠다. 청춘이 끓는 피가 흐르듯 사회마다 정제되고 고인 물들이 뿔뿔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사회도 물을 세차게 흐르게 해야 한다.

기고



오승준 광주시 투자유치과장

광주의 미래 먹을거리, 산업과 일자리

광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만 의지하지 않고, 청년센터와 청년위원회 등을 만들어 청년정책의 내용과 방식을 청년에게 직접 묻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도 청년과 상의하고 토론하여 방향을 정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시는 이를 위해 청년드림사업과 구직 청년 교통카드 지원 등 광주형 청년수당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또한 청년들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I-PLEX라는 융복합 창업지원센터를 만들고, 청년창업펀드와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여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청년들의 창업열기가 1913송정역시장을 비롯하여 대인, 남광주, 양동시장 등 젊은이 넘치는 곳으로, 양림동, 발산, 동명동 등지에서는 마을을 재생시키는 동력으로 커가고 있다.

특히 시는 그동안 일자리를 지키고, 일 자리를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동부전자 등 도와 일자리를 지켰으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대우유니아 등 기업을 유치하고, 옹골 코리아 등의 투자를 키워왔다.

아울러 대한민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대기업이 국내투자를 주저하는 데는 높은 임금과 갈등적 노사문화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을 통한 연대임금, 노동시간 단축,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주창했고, 최근 노·사, 시민사회단체, 여성계 등 22개 주체가 한데 모여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기초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현 정부에서 국가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또한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광주의 미래 먹을거리를 만드는 산업으로 집중육성하고 있다. 이 산업들을 통해 광주의 산업지형도 크게 바뀌고 있다. 민선 6기 투자유치 협약 목표 160개 기업도 1년 앞당겨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빛그린산단에 조성하여 완성차와 부품기업이 효율적으로 협업하고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며, 또한 도시첨단 국가산단이 지난해 12월 착공된 데 이어 곧바로 4개월

만에 지방산단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44만평 규모의 에너지밸리 산단이 만들어지고 있다. 평당 3차 산단 36만평도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또한 송암공단 일원에 첨단실리콘밸리 제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100대 중소기업과 광융합산업, 생체의료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공기산업,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미래형 산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가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광주의 자동차와 연계하여 전자 부품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수소자동차 부품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친환경자동차도시의 면모를 완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전 및 에너지 연구기관, 기업과 함께 광주를 에너지 신산업의 세계적인 선도도시로 만들어 가며, 광주·전남 에너지밸리에 한전공대도 설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하나가 모두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현안들이다. 광주의 새로운 미래 먹을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길에 지역사회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으자.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Radio DJ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program detail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publication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